

『논어』에 나타난 문명의 현상 - 생물학적 관점에서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2008-11405 김정욱

전 글에서 인간 사회가 생물학에서 생명체를 규정하는 기준의 대부분을 만족한다는 것으로부터 인간 사회의 한 양태인 문명을 생명체로 유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생명체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행동하는) 문명의 행위들이 약 2000년간 중국과 그 주변국을 지배했던 사상체계인 유교의 경전 『논어』에 어떻게 간접적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전 글에서도 언급하였듯 이 비유는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이므로 당위명제의 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를 통찰하는 하나의 틀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생명의 특징인 성(性)을 문명의 무엇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성은 생명체에서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유전적 재조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다. 성은 본래 유전자의 재조합을 통해 다양성을 제공하여 진화의 가속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대 연구자들은 유전자의 재조합으로 후세 세대에는 전 세대가 가졌던 대(對) 기생체 취약점¹⁾ 바꾸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음을 밝혔다.²⁾ 두 역할 중 전자는 문명 구조의 잠재적 다양성에 대응하며 이미 사상의 자유라는 방식으로 사회에 구현되어 있지만 후자는 전자만큼 명확하지는 않다. 문명이 그 기생체에 대처하는 체계화된 알고리즘이 두 번째 역할이지만 사회의 기생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포털 Daum이 제공하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기생을 찾아보면 “식물이나 동물에서 어떤 두 종(種) 사이의 관계 중 한 종이 다른 한 종에게 손해를 주면서 자신은 이익을 얻어 살아가는 관계.”라는 말이 나온다. 사회에 적용하면 기생체란 ‘사회가 제공하는 이득을 누리지만 사회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작게는 조모임의 무임승차자나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챙겨가는 직장상사에서부터 크게는 현대 문명의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왜곡하는 독점기업이나 부패한 관리들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한편 모두 ‘사회 암적 존재’와 같은 수사의 용례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³⁾

성의 역할 모두를 다루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이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다양성의 제공보다는 기생체에 대항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공자의 『논어』를 읽도록 하겠다. 고위직의 부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현대 사회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연하지만 기생체에 대한 면역반응을 일으키려면 무엇이 공격해야 할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생명체의 면역계가 피아구별을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⁴⁾ 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사회도 제거해야 할 조직을 올바르게 판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진

1) 여기서 취약점이란 면역계의 선천적인 결함을 말한다.

2) 최재천, 「성의 기원」, 네이버캐스트 생물 산책, 2010.01.28.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1951

3) 이 수사에서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관점이 완전히 새롭지는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자가면역질환이 이런 원리로 발병한다.

통을 겪는다. 비록 『논어』는 배우고 익혀 이상적인 인간상에 달도록 격려하는 말 위주로 채록한 책인지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례도 같이 실려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는가’를 찾는다면 공자가 어떤 사람을 등용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논어』 위정편에는 하는 행동과 동기(혹은 목표) 및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살피면(뒤로 갈수록 심도 있는 관찰이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⁵⁾ 말이 나온다. 위령공편 22장⁶⁾에서도 “군자는 말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자한편 18장의⁷⁾ 결과를 중시하는 듯한 태도나 공자의 관중에 대한 평가⁸⁾를 읽어보면 한 사람의 공허한 말보다는 실제 걸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선진편 20장에는⁹⁾ 말하는 것이 미더워도 군자는 아니라는 공자의 주장이 있다. 공자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의 선거판을 보았다면 분명 개탄했을 것이다.

행동을 살핀 이후에는 그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팔일편의 “윗자리에서는 너그럽지 않고, 예를 행하는데 공경하지 않으며, 상을 당해서는 슬퍼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인정해주겠는가”¹⁰⁾라는 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중책을 맡기 이전에 인간적인 감정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이성적인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됨을 태백편 2장과¹¹⁾ 안연편 6장을¹²⁾ 통해 당부한다. 다른 기준으로 태백편 11장의¹³⁾ “훌륭한 재능이라도 교만하고 인색하면 볼 가치가 없다”는 말을 제시할 수 있는데, 헌문편 3장을¹⁴⁾ 근거삼아 뛰어난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재주를 오직 자신의 잇속을 채우는데 사용하리라고 생각했다 추측할 수 있다. 헌문편 3장은 선비(士)는 안락함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로 당시의 士는 지금과는 달리 식자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했으므로 공자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고도 읽을 수 있다.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는다¹⁵⁾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끼는지 되돌아보게 되는 지점이다.

한편 리인편 7장에는 한 사람을 그의 무리(黨)로 판단할 수 있다는¹⁶⁾ 주장이 등장한다. 필자는 연좌제의 사상적인 근거로도 읽을 수 있는 이 말을 현대에는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사람끼리 뭉쳐 그 비슷한 성격이 더욱 강화되는 주장은 옳지만,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사람인 것은 아니며 그 단체가 커질수록 그 단체의 선입견과 거리가 먼 구성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집단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가 몸담은 집단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5) 子曰 “視其所以，觀其所由，察其所安，人焉廋哉？人焉廋哉？”

6) 子曰 “君子，不以言舉人，不以人廢言。”

7) 子曰 “譬如爲山，未成一簣，止，吾止也，譬如平地，雖覆一簣，進，吾往也。”

8) 헌문편의 17, 18장(판본에 따라 16, 17장)에 관중에 대한 평가가 실려있다.

9) 子曰 “論篤是與，君子者乎？色壯者乎？”

10) 子曰 “居上不寬，爲禮不敬，臨喪不哀，吾何以觀之哉？”

11) 子曰，“恭而無禮則勞，慎而無禮則慙，勇而無禮則亂，直而無禮則絞。”

12) 子張問明，子曰 “浸潤之譖，膚受之愬，不行焉，可謂明也已矣。浸潤之譖，膚受之愬，不行焉，可謂遠也已矣。”

13) 子曰 “如有周公之才之美，使驕且吝，其餘不足觀也已。”

14) 子曰 “士而懷居，不足以爲士矣。”

15) 황형준, 「울 대학진학률 72.5%... ‘대한민국’ 달라지고 있다」, 『동아일보』, 2011.12.24

16) 子曰 “人之過也，各於其黨，觀過，斯知仁矣。” 주자와는 달리 다산은 黨을 치우침으로 풀었다.

흥미로운 주장은 자로편 24장이다.¹⁷⁾ 공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선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주장한다. 예의 역할은 화합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학이편 12장¹⁸⁾도 연상되는데, 다르게 말하자면 마찰이 적은 것이 좋은 사회이더라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허구한 날 의회에서 싸우니 우리나라가 이 꼴이다.”라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만나는데, 과연 흥역 하나 없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일지 반추해보아야 할 것이다.

『논어』는 멀리해야 할 사람을 분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참고자료이지만 이미 자리 잡은 사람이 올바르게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부실하기만 하다. 군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말은 위정편 19장이거나¹⁹⁾ 안연편 22장의²⁰⁾ “바른 사람이 위에서 통치한다면 악인은 물러갈 것입니다” 정도밖에 없다. 당대에는 권력의 꼭대기가 절대적인 힘을 누렸기 때문에 공자는 정점에서 마음만 올바르게 먹는다면 손쉽게 개혁이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자로편 2장으로²¹⁾ 미루건데 바른 사람을 등용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은 금방 구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당시는 자신이 추천한 인물에 따라 자기도 승진할 수 있었으므로 천거할 유인이 있지만 현대 사회는 오히려 유인이 반대로 작용-보다 뛰어난 사람을 추천하면 상대적으로 자신은 뒤처지므로-하니 더욱 적용이 힘들어 보인다.) 추측하며, 피지배자 계층에게는 리인편 26장과²²⁾ 같이 조심스럽게 간언을 하라는 조언이나 공야장 20장처럼²³⁾ 아예 은거하라는 말만 주어지는 것도 간접적인 증거라 하겠다. 미자편 1장의²⁴⁾ 비간(比干)과 같이 목숨을 내놓고 간언하라는 암시도 있으나 현대의 사회구조를 생각한다면 적절한 조언은 아니며, 공자의 시대와 현재는 권력의 근원이 다르므로 좋은 해답을 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리하자면 『논어』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그의 행동을 보고 그 다음 그의 됨됨이와 생각을 파악하라고 조언한다. 그가 인간미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사사로이 권력을 사용할 사람인지를 간파하되 필요하다면 그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라고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더라도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인다. 하지만 이미 정착한 경우에 대해서는 뾰족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논어』는 끊임없는 자기수양을 강조하는 책이므로 해결책보다는 예방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논어』에서 문명이 기생체에 대항하는 방법을 읽어보았지만 이 방법들은 지금 도입한다면 정보다는 면역에 가까워 보인다. 면역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생체에 대항하기 위한

17) 子貢問曰“鄉人皆好之，何如？”子曰“未可也”“鄉人皆惡之，何如？”子曰“未可也。不如鄉人之善者好之，其不善者惡之。”

18) 有子曰“禮之用，和為貴。先王之道，斯為美，小大由之。有所不行，知和而和，不以禮節之，亦不可行也。”

19) 哀公問曰“何為則民服”孔子對曰“舉直錯諸枉，則民服，舉枉錯諸直，則民不服”

20) 樊遲問仁，子曰“愛人。”問知，子曰“知人。”樊遲未達，子曰“舉直錯諸枉，能使枉者直。”樊遲退，見子夏曰“鄉也，吾見於夫子而問知，子曰‘舉直錯諸枉，能使枉者直’，何謂也？”子夏曰“富哉，言乎！舜有天下，選於衆，舉皋陶，不仁者遠矣。湯有天下，選於衆，舉伊尹，不仁者遠矣。”

21) 仲弓為季氏宰，問政，子曰“先有司，赦小過，舉賢才。”曰“焉知賢才而舉之？”曰“舉爾所知，爾所不知，人其舍諸？”

22) 子游曰“事君數，斯辱矣。朋友數，斯疏矣。”

23) 子曰“甯無子，邦有道則知，邦無道則愚。其知可及也，其愚不可及也。”

24) 微子去之，箕子為之奴，比干諫而死。孔子曰“殷有三仁焉”

방법론이지만 성은 기존의 체계를 재구성하여 기생체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점이 다르다. 당시에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였으며 그 명령의 하달 과정에서 한 사람만 바뀌어도 사회 체계가 바뀌었으므로 면역 뿐 아니라 성의 역할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적인 정치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으며 아무리 중요한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사회 구조의 구멍에 편법으로 파리를 튼 기생체를 차단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므로 성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²⁵⁾ 따라서 『논어』를 용인술(用人術)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현실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대책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논어』를 그 첫 걸음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한편 성을 기생체를 제거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볼 때 다음의 흥미로운 사고실험이 가능하다. 기 인용된 『괴델, 에셔, 바흐 *Gödel, Escher, Bach*』의 4장 ‘Contracrostipunctus’에는 게가 어떤 레코드 재생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생기에서 제대로 재생이 불가능한 레코드를 만들어 골탕 먹이는 거북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괴델의 불안전성 정리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모든 낮은 음질(low fidelity)의 재생기는 낮은 음질이기에 때문에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레코드가 있으며, 모든 높은 음질(high fidelity)의 재생기는 공명을 일으켜 파괴하기 때문에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레코드가 있다’는 명제로 바꾼 것이다. 이 명제를 사회 체제에 적용하면 ‘모든 단순한 사회 체제는 단순하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고, 모든 복잡한 사회 체제는 그 복잡성에서 생기는 구멍으로 부패가 일어난다’가 된다. 수학적 엄밀함이 결여되었으며 논리적인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²⁶⁾ 이 질문 자체는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도 부패 없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론이 우리가 ‘부패가 최소화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되지는 않으며, 우리가 그 시도를 멈추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불가능해 보이기만 하는 시도들 위에 쌓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25) 흔히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처럼 생각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26) 사과를 허수만큼 사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